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키움증권

## 미 증시, 연준 긴축 우려 완화에도, 반도체주 수급 부담 등으로 혼조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일(목) 미국 증시는 6월 신규 고용 부진(5.7만 vs 컨센 11.4만)에 따른 연준의 긴축 불안 완화에도, 마이크론(-5.5%), 샌디스크(-14.2%) 등 메타발 노이즈 여진에 따른 반도체주의 차익실현 압력이 지속된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1.1%, S&P500 +0.0%, 나스닥 -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4%).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의 연쇄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5~6월 중 반도체주 중심의 조정 장세와 달리, 이번에는 여타 업종들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전일 미국 증시에서 기술(-1.5%), 커뮤니케이션(-0.8%), 경소비재(-0.8%) 등 3개 업종만 약세를 보였을 뿐, 헬스케어(+2.7%), 필수소비재(+2.4%), 유틸리티(+2.3%), 소재(+2.1%) 등 나머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

더욱이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약세로 인해 이슈가 묻힌 측면이 있지만, 6월 비농업 신규 고용 부진으로 연준의 9월 금리인상 전망이 후퇴했으며, WTI 유가 부담도 완화되고 있는 만큼, 추후 단기적으로 반도체, AI 등 기존 주력 업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라도, 지수의 추가적인 레벨 다운 압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전일 국내 증시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이 반도체주의 연쇄 급락으로 이어진 가운데, 장중에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된 여파로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7%대 급락세로 마감(코스피 -7.9%, 코스닥 -6.7%)

금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지속, 코스피200 야간선물 1%대 약세 부담 등으로 장 초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연준의 9월 금리인상 전망 후퇴, 전일 지수 7%대 폭락에 대한 낙폭 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장중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처럼 코스피가 2주 연속 급락을 맞는 과정에서 시장의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지난주 코스피 -7.1%, 이번주 코스피 -9.1%, VKOSPI 90pt대내외).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현재 사이드카가 일상화될 정도의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코스피 랠리의 주역이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이 연쇄 급락을 맞고 있다는 점도 체감상 하락의 강도를 키우고 있는 상태.

하지만 반도체 급락 배경이 펀더멘탈 훼손인지, 노이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 이런 측면에서 메타의 잉여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진출이라는 보도를 AI 투자 과잉으로 해석하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아직 메타 측에서도 공식 발표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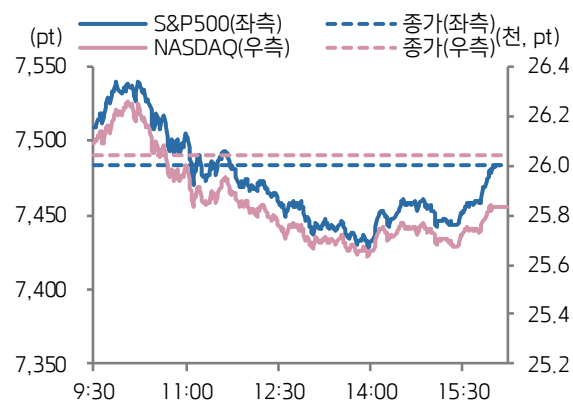
AI 투자가 과잉 상태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수요 둔화, 수요 부족의 현상들이 실제로 등장해야 하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만약 AI 수요, 메모리 수요에서 피크아웃 신호가 가시화되고 있다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메모리 공급업체들과 장기공급계약(LTA, SCA)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것임. 그러나 지난 마이크론 실적에서 3~5년 16개 업체들과 1,000억달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지난 1일 발표된 ISM 제조업 PMI 내 각 산업 구매담당자들의 코멘트에서도 확인 가능.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방산, 반도체 Fab향 장비 수요가 상당히 강함(Machinery in support of defense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s very strong)”, AI 산업이 핵심 전자부품(critical electronics)의 생산 능력을 대규모로 소비하고 있음(AI industry continues to have huge capacity consumption for critical electronics)”과 같은 응답들이 등장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

이는 반도체주 중심의 코스피 조정은 2분기 중 역대급 폭등 랠리에 대한 기술적인 되돌림 성격이 짙음을 시사. 올해 2분기 코스피 상승률(+66.7%)이 1990년 이후 역대 2위를 기록한 점을 참고할 필요(역대 1위 1998년 4분기 +81.3% -> 다음 분기 +10.1%, 역대 3위 2001년 4분기 +44.6% -> 다음 분기 +29.1%). 이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솟감마 현상이 중첩된 여파가 장중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유도했던 것으로 판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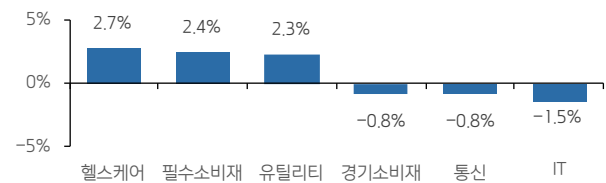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현재는 단기간에 투자심리가 냉각된 만큼, 악재성 뉴스플로우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면임. 중간중간 증시 전반에 걸친 주가 변동성, 즉 매수 혹은 매도 사이드카가 추가로 출현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 하지만 AI 수요 둔화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포함 코스피 이익 펀더멘털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판단. 다음주 삼성전자 잠정실적(7일), SK하이닉스 ADR 상장(10일) 등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를 고려 시, 현시점에서는 다운 사이드 리스크(가격 하락)에 베풀기보다는, 반도체, MLCC, 증권, 전력기기 등 전일 낙폭과대 업종 분할 매수를 통해 증시 전반의 업 사이드 리스크(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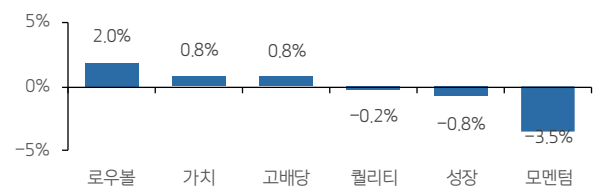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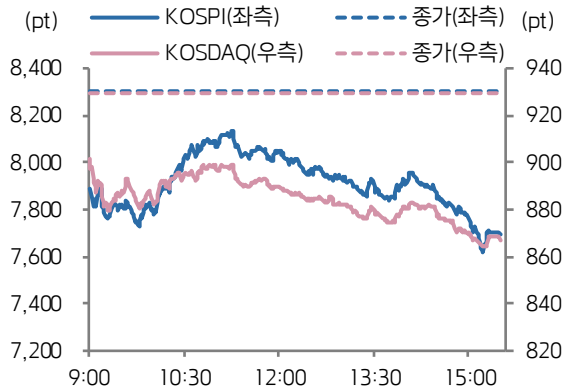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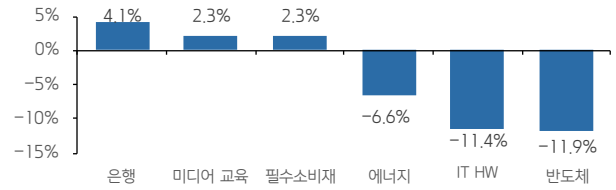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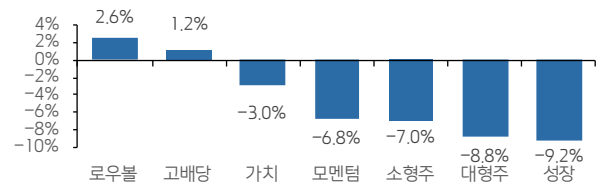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308.63	+4.84%	+13.53%	GM	76.00	+0.64%	-6.54%
마이크로소프트	390.49	+1.62%	-19.26%	일라이릴리	1,213.91	+1.86%	+12.96%
알파벳	359.91	-0.36%	+14.99%	월마트	111.84	+2.78%	+0.39%
메타	582.90	-4.9%	-11.69%	JP모건	334.47	+0.12%	+3.8%
아마존	242.67	+0.4%	+5.13%	엑손모빌	137.09	+0.59%	+13.92%
테슬라	393.45	-7.49%	-12.51%	셰브론	169.20	+2.12%	+11.02%
엔비디아	194.83	-1.39%	+4.47%	제너럴일렉트릭	111.84	+2.8%	+0.4%
브로드컴	360.45	-2.41%	+4.15%	캐터필러	963.53	-2.81%	+68.19%
AMD	517.82	-4.26%	+141.79%	보잉	226.49	+3.62%	+4.32%
마이크론	975.56	-5.49%	+241.81%	넥스트에라	88.34	+2.3%	+10%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648.09	-7.89%	+81.49%	USD/KRW	1,540.00	-0.72%	+6.98%
코스피200	1,219.62	-8.67%	+101.26%	달러 지수	100.87	-0.52%	+2.59%
코스닥	866.72	-6.74%	-6.35%	EUR/USD	1.14	+0.48%	-2.67%
코스닥150	1,545.88	-7.67%	-0.09%	USD/CNH	6.79	-0.09%	-2.68%
S&P500	7,483.24	+0%	+9.32%	USD/JPY	161.11	-0.9%	+2.81%
NASDAQ	25,832.67	-0.8%	+11.15%	채권시장			
다우	52,900.07	+1.14%	+10.06%	국고채 3년	3,745	-4.5bp	+79.4bp
VIX	16.15	-2.65%	+8.03%	국고채 10년	4,185	-2bp	+80bp
러셀2000	2,996.11	-0.55%	+20.72%	미국 국채 2년	4,137	-3.7bp	+66.4bp
필라. 반도체	12,626.22	-5.44%	+78.26%	미국 국채 10년	4,483	+0.4bp	+31.6bp

다우 운송	22,015.11	+0.25%	+26.84%	미국 국채 30년	4.985	+1.5bp	+14.2bp
상해종합	4,028.90	-2.03%	+1.51%	독일 국채 10년	2.904	+2.6bp	+4.9bp
항생 H	7,612.48	+0.72%	-14.6%	<b>원자재 시장</b>	<b>가격</b>	<b>DTD(%)</b>	<b>YTD(%)</b>
인도 SENSEX	77,502.12	+0.75%	-9.06%	WTI	68.69	+0.16%	+20.42%
<b>유럽, ETFs</b>	<b>가격</b>	<b>DTD(%)</b>	<b>YTD(%)</b>	브렌트유	71.80	+0.32%	+18%
Eurostoxx50	6,360.47	+1.24%	+9.83%	금	4,125.70	+1.06%	-7.09%
MSCI 전세계 지수	1,117.95	-0.22%	+10.18%	은	60.64	+0.93%	-14.11%
MSCI DM 지수	4,813.59	-0.25%	+8.65%	구리	611.45	-0.15%	+7.61%
MSCI EM 지수	1,721.93	-0.06%	+22.61%	BDI	2,562.00	+2.44%	+36.49%
MSCI 한국 ETF	180.14	-2.89%	+85.29%	옥수수	441.50	-0.17%	-4.13%
<b>디지털화폐</b>	<b>가격</b>	<b>DTD(%)</b>	<b>YTD(%)</b>	밀	599.75	-0.04%	+9.89%
비트코인	61,516.59	+2.41%	-29.81%	대두	1,147.75	-0.13%	+7.82%
이더리움	1,704.15	+5.42%	-42.77%	커피	301.20	-2.81%	-5.9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